

사전투표에 사활 건 여·야 ... “집토끼를 투표장으로”



총선 D - 5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되면서 여·야가 조직을 총동원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과거 광주·전남지역은 사전투표율이 높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투표율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각 당이 사전투표 독려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관련기사 3·4·5·6면〉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늘·내일 이틀간 광주 95곳·전남 297곳에서 사전투표 정당·후보들, 조직 총동원해 지지자 투표율 높이기 총력

은 초반 승세를 굳히기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민생당도 조직을 총동원해 지지층의 사전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이날 각 정당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각 당이 사전 투표에 집중하는 것은 코로나19 탓에 전체 선거율이 낮아질 경우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주당 대부분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직접 투표소를 찾아 투표 독려 차원에서 미리 한 표를 행사한다. 이들 후보는 9일 SNS, 유튜브 등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글과 영상을 올렸던 올렸다.

민주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조직을 가동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된 민생당 후보들은 수년 동안 쌓인 조직을 총가동해 사전 투표를 홍보했다. 정의당, 민중당, 군소 정당도 거리 유세와 피켓 홍보 등으로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는 광주·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 사전투표율은

15.75%, 전남은 18.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12.19%보다 높았다.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광주 33.67%, 전남 34.04%로 전국 평균(26.06%)보다 월등히 높았다. 7회 지방선거 역시 광주 23.65%, 전남 31.73%로 전국 평균(20.14%)보다 높았다.

한편, 사전투표는 10~11일 이틀간 전국 3508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광주는 95곳, 전남은 297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전남에서는 합평군수 보궐선거와 여주시의원(나)선거구 재선거 사전투

표가 함께 진행된다. 재보궐 선거구인 순천시의원(사)·합평군의원(가) 선거구는 모두 후보자가 각각 1명이어서 투표는 하지 않는다.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우려에 투표소 방역을 완료했으며 투표소 입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한다. 유권자는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동계 사업 탈퇴 선언할 때까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무엇을 했나”

광주노사민정협의회 1차회의
노동계·박광대 대표 불참
참석자들, 경영진 행태 성토
노동계 빠른 복귀 요청도

대한민국 첫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미래가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노동계와 현대차를 주축으로 한 사업주 간 ‘패권 싸움’을 보다 못한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양측 모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오히려 상호 불신만 팽배해지고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했던 정부와 민주당이 직접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9일 오후 광주 빗그린 산단 내 (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전체 회원 25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민정 핵심 축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등 노동계 대표 3명은 불참했다. 또 정식 노사민정 협의회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측 대표인 박광대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는 참석을 약속했다가,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비판이 쏟아졌다. 대신 박광식 부사장이 간략한 사업 보고를 했다.

회의에참석한 협의회원 중 상당수는 이날 박광대 대표 등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협의회원은 “노동계가 사업 탈퇴를 선언할 때까지 사업주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면서 “엄중한 시기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오늘)이 자리마저도, 정작 사업주 (박광대)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사민정 가운데 사실상 노사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일단 각 사업 주체에게 상생노력을 촉구하는 사항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노사민정 협의회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동계가 핵심 주체로 참여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의해왔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며 “이견이 있다면 공식 협의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치열한 논의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노동계의 복귀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1대 주주인 광주시에 사

업의 추진 주체이자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사 신뢰 회복과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특히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를 향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시작된 만큼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 시 최대한 지역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하청간 상생과 격차 해소에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사업 주체간 탄탄한 신뢰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광주글로벌모터스측인 임원 임금 수준 적정화를, 시민사회단체에는 지역 역량 결집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이용섭 시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150만 광주 시민과 온 국민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때인데, 협약체결을 파기하고 불참을 결정한 지역 노동계가 진정으로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노사 상생의 일자리 사업으로 성공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동계 돌아오라” 9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거동 빗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부지에서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투자협약서 공개...이면·밀실계약 없었다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현대차와 체결한 비공개 자료인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서’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공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계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이면계약이나 밀실 계약 내용 등은 없었다.

광주시는 9일 광주 빗그린산단 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직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협약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협약서는 지난해 1월 31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으로, 8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현대차는 경차급 SUV 차종을 새로 개발해 신설탁인에 생산을 위탁하고, 법인

은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공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근로자 복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현대차는 공장 건설,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 기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 등 5개 첨부 문서에 담겼다.

신설탁인 상생협회의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했으며, 근로 조건으로는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 근무 기준) 등이 제시됐

다. 총 투자규모는 7000여억원으로, 설립 자본금은 40%인 2800억원으로 정했다.

이날 공개된 투자 협약서엔 광주시와 현대차간 이면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속서류로 첨부돼 있는 노사 상생발전협정서에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 등과 관련한 조항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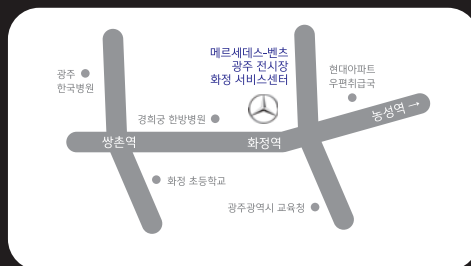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 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